

News

6월 시중은행 가계대출 1조2000억원 증가…빚투 열풍 진정세

매일경제

5대 시중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9조 1,07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 전 687조 8,076억원보다 1조 2,996억원 증가
시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월 4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6월에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장, 은행장들에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최소화" 당부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시중은행장들에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은 최소화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은행과 차주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하반기 증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보다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펀드 판매 석달만에 3분의 1 토막

서울경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은행권에는 펀드에 가입하려는 고객의 발길이 크게 줄었다.
4대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우리)의 3.25~6.24까지 판매된 신규 펀드는 28만여 건. 지난 해 12월에서 올해 2월까지 77만여 건을 기록해 3분의 1가량 급감

우리금융 이르면 8월부터 정부 지분 된다…“7월 말 계획 구체화될 듯”

아시아투데이

28일 열렸던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우리금융의 주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하지만 예보는 잔여지분에 대한 매각 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공자위 관계자는 다음 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매각 방안이 결정되지 않는다며 잔여지분 매각 일정은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구체화될 전망

신한라이프 출범…“일류 보험사되겠다”

뉴시스

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통합법인인 '신한라이프'가 1일 공식 출범
2019년 2월 신한금융지주가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한 이후부터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약 2년반 동안 함께 진행해온 통합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

'날씨·펫보험' 미니보험사 설립 신청 10곳…“일단은 흥행성공”

뉴스1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 핀테크 업체 등 10곳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의사를 밝혔다. 유통, 의료공제 사전수요조사에 불참했으나 향후 참여 가능성 있다.
금융위는 신청 업체를 상대로 컨설팅 작업 등 사전준비를 거친 뒤 예비허가, 본허가 신청을 받는다. 상품 출시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보, 일반보험까지 디마케팅…사업축소 가속

데일리안

롯데손보는 지난 달 초부터 아파트에 대한 ▲주택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보험 5종의 인수를 잠정 중단
사업성이 좋지 않은 상품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판매에 제동을 거는 디마케팅 전략이 자동차보험을 넘어 일반보험으로도 확산되는 모습

'공매도' 대선 이슈될까…공약 나오자 군불 때는 개미들

뉴스1

대선 후보로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공매도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을 약속하면서 공매도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
그는 기관의 공매도 주문시 계좌잔고 확인을 철저히 하고, 기관의 차입 공매도 상환 만기를 6개월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